

국토정책 Brief

KRIHS ISSUE PAPER



KRIHS POLICY BRIEF • No. 780

발행처 | 국토연구원 • 발행인 | 강현수 • www.krihs.re.kr

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

조성철 부연구위원

주요내용

- 1** 청년인력 지방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, 제조업 위주로 지방도시의 기존 주력업종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청년인력을 붙잡을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
 - 전통적인 입지조건인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층 선호가 감소하고, 제조업의 전망 악화와 서비스업의 최저 임금 상승이 엇갈리면서 기존 산업단지의 청년인력 이탈이 가속화
- 2** 문화적·사회적·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차별된 가치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터관을 반영해 지방거점마다 청년친화적인 산업공간을 재구성하는 노력 필요
 - (문화적 측면) 획일화된 상업공간보다 골목·거리의 로컬감성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는 지방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골목산업 및 원도심경제의 부흥을 촉진
 - (사회적 측면)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대하며 상호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는 코워킹·코리빙 하우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화된 네트워크 발달 촉진
 - (경제적 측면) 자유노동·공유경제 패러다임을 포용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대안적인 일터문화를 선도하며 로컬크리에이터·메이커운동 등 창의적인 소상공인 창업활동에 적극 참여
- 3** 청년 산업인력의 일자리 입지패턴 분석 결과, 전통적인 산업집적지의 청년고용은 빠르게 감소한 반면,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창조적인 거리 등의 공간에서 청년산업 생태계가 부상하는 경향이 관찰됨
- 4** 지방도시의 청년고용 기반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, 학습과 성장의 균형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·공간·입지의 설계가 필요

정책방향

- ① (입지조건)** 직주근접이 어려운 교외화된 단지보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창업·창작·소비 활동이 집중되는 창조적인 거리공간을 산업공간으로 인식하고, 그 잠재력을 계발하는 공간정책 마련
- ② (학습·산업 연계)**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학습공간과 일자리공간을 연계하는 '캠퍼스혁신파크' 방식의 전략사업 확대 시행
- ③ (지원기능)** 하드웨어 중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, 물리적 공간에 기술교육·창업보육·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부처 공동사업 추진
- ④ (복합공간)**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코리빙하우스, 코워킹하우스 등의 대안적인 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된 산업공간을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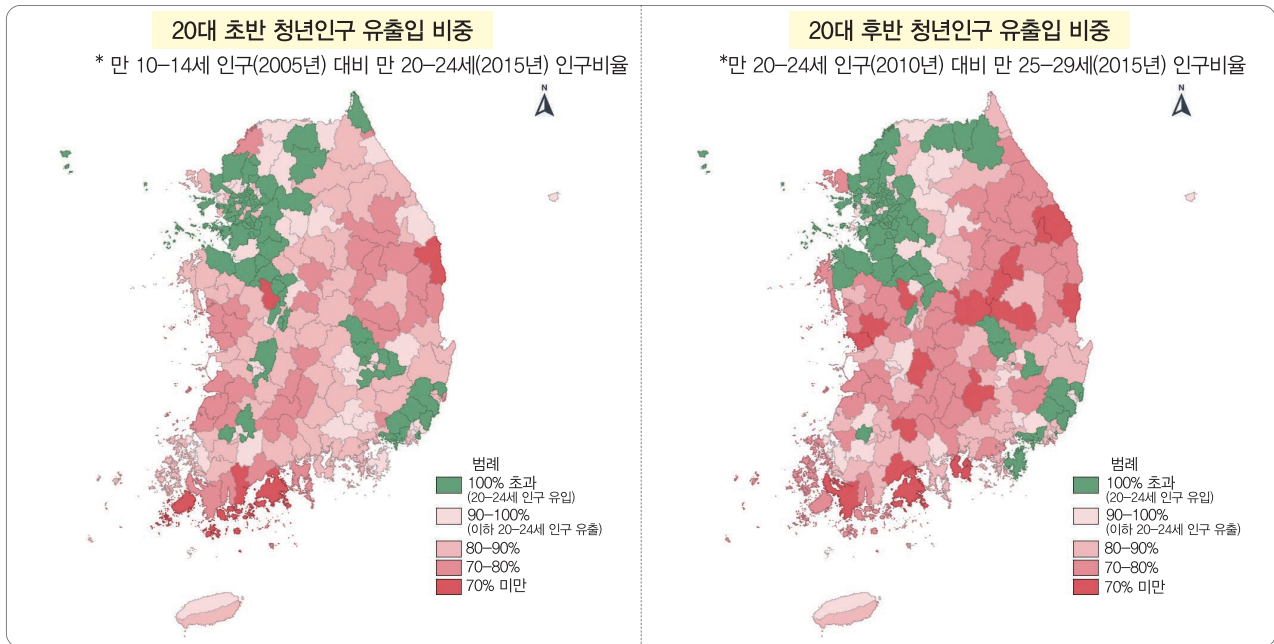
1.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의 필요성

지방 주력산업의 약화와 청년인구 이탈

청년인력의 지방이탈을 야기하는 주된 계기는 첫 취업과 대학 진학

-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대학에 진학하는 20대 초반(만 20~24세)이나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20대 후반(만 25~29세)에 집중
- 청년인구 유출규모가 큰 전라남도의 경우 청년인구의 11.91%가 20대 초반에 지역을 떠나고 20대 후반에는 일자리 선택을 위해 다시 14.22%의 청년인구가 지역을 이탈
-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거점 마다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

그림 1 지역별 청년인구 증감의 연령구간별 추이 비교



주: 좌측 그림은 2005년 기준 10~14세 인구 규모와 2015년 기준 20~24세 인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이며, 우측 그림은 동 기간 20~24세 인구 규모와 25~29세 인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임. 자세한 산식은 조성철 외 2019; 김준영, 2016. 청년인구의 지방유출과 수도권집중: 5가지 특징.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가을호, 6~24. 충북: 한국고용정보원 참조.

출처: 통계청, 2019. '주민등록연앙인구'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 계산해 작성.

지방산업도시들의 주력업종 침체는 청년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

- 제조업발 고용위기가 기존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, 제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으로의 인력이탈로 인한 제조업의 고령화 진행
- 2016~2018년까지 제조업 감소인력 12만 8천 명 중 5만 5천 명(43%)은 29세 미만 청년인력인 반면,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오히려 7만 3천 명 증가
- 그 결과, 국내 제조업의 고령노동자(55세 이상) 비중은 2014년 14.3%에서 2018년 19.2%로 빠르게 상승해 전체 산업의 고령화 속도를 큰 폭으로 추월

전통적인 입지조건의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감소하면서 현장 제조업체들의 신규인력 구인난 심화

- 도시로부터 멀리 고립되어 생산기능에만 특화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기회를 추구하는 청년들의 근무지 선호를 만족시키기 어려움
- 더불어 제조업의 경기침체와 전망 악화,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서비스직 임금수준 상승 같은 외부조건 변화에 따라 청년인력의 산업도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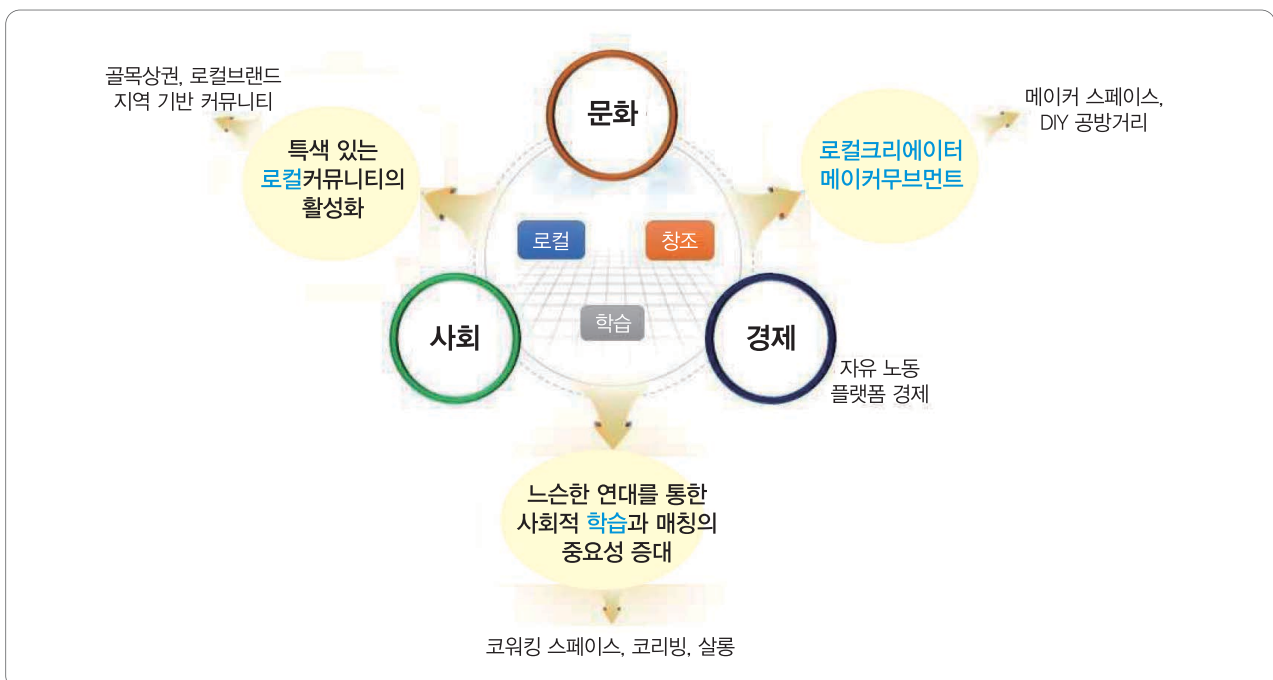
2. 탈산업화 시대 청년 산업인력의 특징과 입지선택

밀레니얼 청년세대 트렌드의 공간적 함의

밀레니얼 세대의 일터관과 직업관은 문화적·사회적·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차별된 가치 지향

- (로컬 지향성) 밀레니얼 세대는 백화점, 쇼핑센터처럼 문화적으로 획일화된 공간보다는 골목상권 등 로컬 문화의 활력과 고유한 개성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선호
- (느슨한 연대) 사회적인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대하며 지식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개방된 도시환경 선호
- (자유로운 노동) 경제적인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자유노동과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삶과 일의 균형과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일터문화 선호

그림 2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·사회·경제적 트렌드의 크로스오버



출처: 조성철 외 2019, 38.

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문화적·사회적·경제적 트렌드는 서로 융합하며 지역산업의 지형을 재구성

- 로컬감성으로 대변되는 문화적 트렌드와 느슨한 연대로 대변되는 사회적 트렌드는 교집합을 형성하며 골목 산업 및 원도심경제 부흥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
- 느슨한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적 트렌드와 자유노동 확산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트렌드의 교집합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등장을 선도하며 코워킹·코리빙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
- 로컬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문화적 트렌드는 자유노동 확산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트렌드와 융합하여 로컬크리에이터와 메이커 운동 확산을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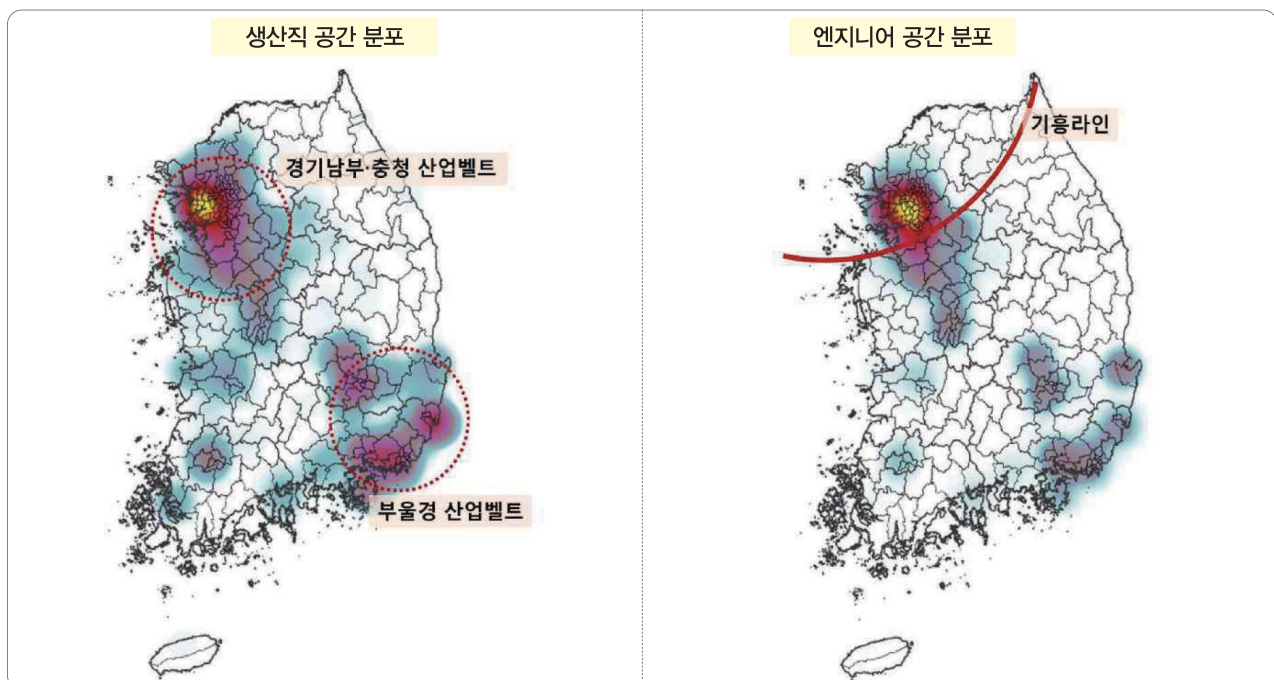
3. 청년 산업인력의 고용 분포 및 증감요인 분석

기업DB를 활용한 청년 산업인력 고용 분포 분석

청년 일자리는 기술직·연구직일수록 수도권·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

- 연구직·전문직 청년고용은 정부 연구기관이 집적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하면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 대거 집중되어 있음
- 생산직 청년고용은 부산·울산·경남 산업벨트에 수도권과 비견할 집적이 형성되어 있으나, 제조업 내에서도 숙련도가 높은 기술직(엔지니어) 일자리는 전통적인 산업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음

그림 3 청년 산업인력의 직종별 전국 고용 분포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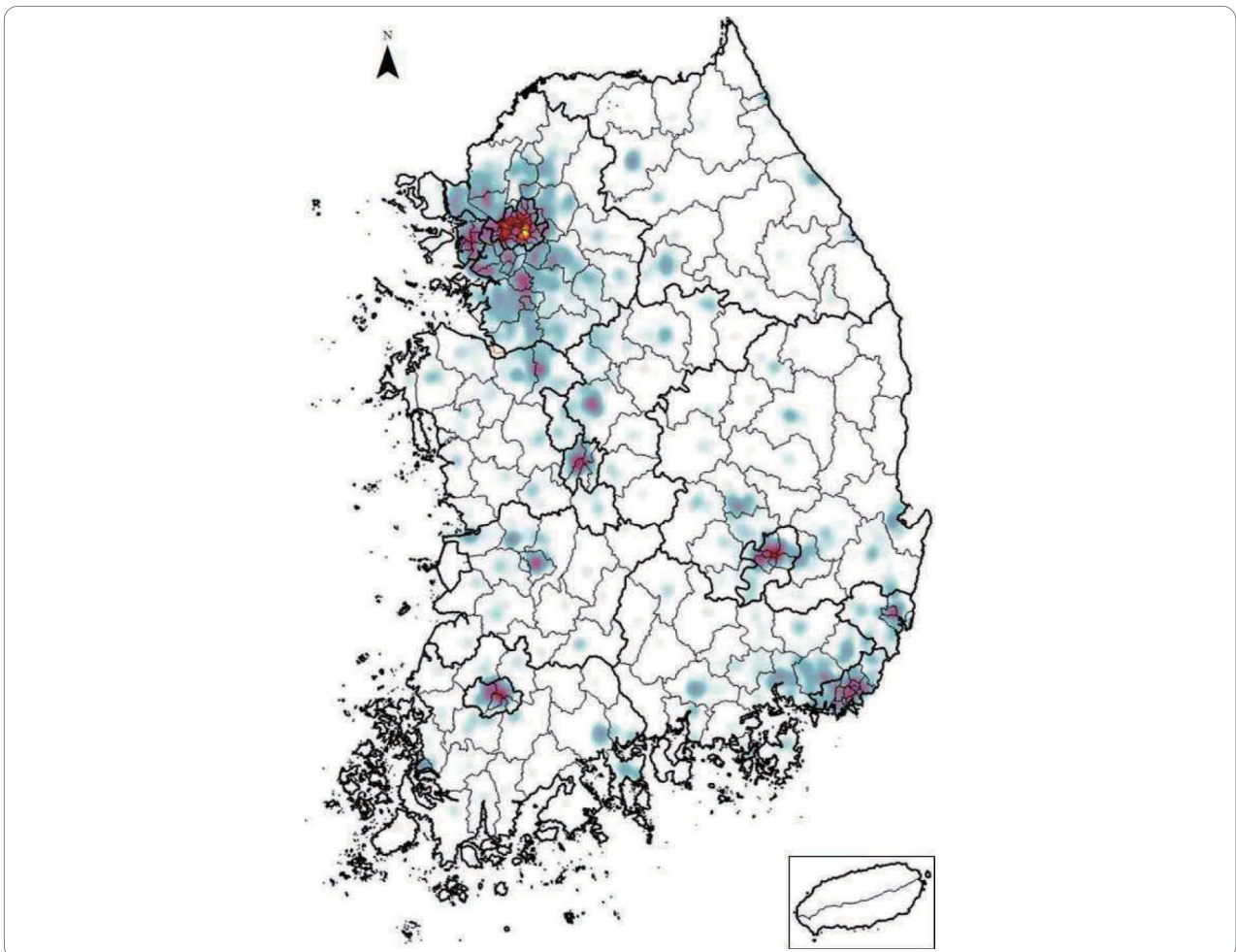


출처: 조성철 외 2019, 71-72.

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공간보다는 창조적인 거리 등 밀레니얼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장소에 집중

- 전반적인 추세는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력 유출 경향이 뚜렷하지만, 격자단위 청년고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방도시 중에서도 청년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점이 존재
- 이들 중에는 도시적 활력, 로컬문화, 창조적인 산업 및 직군, 정주여건,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도시 내 매력적인 거리·골목에 청년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장소가 많음
 - 수도권외의 경우 홍대·합정, 성수동 등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춘천시 옥천동·교동, 전주시 효자동·풍남동, 창원시 용호동·용지동 등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활기찬 골목 상권을 가진 원도심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가 관찰됨
 -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역량 있는 지역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청년고용 비중 증가 역시 관찰됨
- 반면, 교외화된 산업단지 같은 전통적인 산업집적지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제조업 경기의 악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와 맞물려 청년 산업인력의 비중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

그림 4 2013~2019년 청년고용 비중 증가지역 분포(격자단위 국토공간 분석 결과)



출처: 조성철 외 2019, 87.

4.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

청년 취·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산업입지전략 전환

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산업공간 육성을 위한 기존 정책방향 전환 검토

- (입지조건) 직주근접이 어려운 교외화된 단지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시 내부공간의 재생을 통해 취·창업 생태계를 위한 산업공간 공급을 확대
- (학습·산업 연계)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학습공간과 일자리공간을 연계하는 산업입지전략 추진
- (지원 기능) 고립된 입지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, 물리적 공간에 기술교육·창업보육·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부처 공동사업 추진
- (복합공간)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코리빙하우스, 코워킹하우스 등의 대안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복합화된 산업공간 육성

그림 5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의 기본방향



출처: 조성철 외 2019, 요약 ix.

현재 진행 중인 대안적인 산업입지 정책들의 성과를 확대해 지방 산업도시의 청년 고용환경을 개선

- 대학공간에 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‘캠퍼스혁신파크’ 사업이나 원도심지역에 복합화된 산업공간을 조성하는 ‘도시재생혁신지구’ 사업 등의 확대 추진
- 청년들의 창업·창작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창조적인 거리공간을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공간으로 지정하고 장인대학 등 앵커시설 공급 및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공간 공급

※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‘조성철·강호제·박정은·김다윗·탁혜영, 2019,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, 세종: 국토연구원’의 내용을 수정·보완해 정리한 것임.

조성철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(sccho@krihs.re.kr, 044-960-0153)



KRIHS 국토연구원

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
전화 044-960-0114

홈페이지 www.krihs.re.kr
팩스 044-211-4760

